

문화

리얼리즘 속 한국 민중미술

시립미술관 15일 '특특강의'



장경화씨

광주시립미술관은 15일 오후 2시 미술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특! 현대미술' 강의의 열 번째 강의를 연다.

이번 강연은 '리얼리즘 미술과 한국의 민중미술'이라는 주제로 장경화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관이 강사로 나서, 리얼리즘 미술의 맥락 속에서 한국의 민중미술을 풀어낸다.

장 학예연구관은 '한국 민중미술'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민중미술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관객들이 민중미술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 연구관은 강의를 통해 리얼리즘 미술이 자본주의의 사회모순, 환경, 전쟁과 폭력 등을 주제로 끌어들이면서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미술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당시 정치적 상황과 연계,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062-613-715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재단 강좌

시민대 2기 수강생 모집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장 문병란)과 광주교육대 역사문화연구소는 제2기 역사문화 시민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역사 속의 질병과 인간 생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오는 23일부터 7월4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2시30분) 광주YMCA 백제실에서 열린다. 수강생은 오는 21일까지 4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3만원(당사비 포함)이다.

구체적인 강좌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진왜란과 전염병=김덕진(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 ▲16세기 대양탐험과 질병의 교환=이영석(광주대 영문학과 교수)
- ▲중세 유럽의 흑사병과 삶의 새로운 희망=김병용(조선대 사학과 교수)
- ▲제1차 세계대전기 인플루엔자와 한국=한규무(광주대 관광학과 교수)
- ▲일제의 식민지배와 한센병=박영철(소록도 병원장) 등이다.

문의 062-234-27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첫 공모 통해 광주비엔날레 참여하는 로이스 응·조현택·최미연씨



로이스 응·조현택·최미연(사진 왼쪽부터)씨는 오는 9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젊은 작가의 신선함에 지역의 정체성과 국제적 감각을 가미한 작품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정체성 작품으로 알릴게요”

최미연(27), 조현택(31), 로이스 응(30·ROYCE NG)씨 등 젊은 작가들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다. 오는 9월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때 전 세계 유명 작가들과 나란히 작품을 설치,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기회'를 거머쥐게 됐다는 기쁨도 컸다.

광주비엔날레는 제 9회 광주비엔날레 포드폴리오 공모작 63점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조씨 등 3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벌써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선대 한국화와 출신으로 2010년 광주시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작가다.

동시대 사진영상학과를 거쳐 여러 차례의 개인전에서 독특한 사진 및 영상 작품을 선보였던 조씨도 “솔직히 실감이 나질 않는다”고 했다.

조씨는 “내 작품을 관객들에게 한 번 더 보여

줄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비엔날레는 로이스 응씨가 진행하는 설치 퍼포먼스 작품 활동이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이라는 주제와 맞는다. 작품의 독창성·표현성·소통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또 외국인으로 광주에서 지역 작가들과 다양한 창의적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점,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세계의 젊은 작가들의 관심도 등을 반영해 로이스 응씨를 참여작가로 선정했다.

세 사람은 벌써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시 구상도 세워놓은 상태다.

로이스 응씨는 광주극장을 활용해 가칭 'exotic garden'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광주극장이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 사회적 맥락 등을 반영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관련자 인터뷰와 시민들 참여 방안도 머릿속에 그려놓았다.

최씨도 'in my city'라는 주제에 맞춰 사회를 유랑하면서 유토피아를 찾는 현대인들을 작품 속에 담아낼 계획이다. 주어지는 공간에 따라 바뀔 지 모르지만 120호짜리 대형 작품 10개를 전시해보겠다는 게 최씨 구상이다.

조씨는 최근의 작품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소년이여! 아픔을 가져라'와 '젊은이의 양지' 등의 이야기를 확장해 펼쳐보일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을 선보여 지역 작가들의 신선함을 소개하고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알릴 것입니다.”

작품 분야도, 성격도 다른 3명의 젊은 작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우리 땅 이런 풍경도 있었나

정영옥사진전 16일까지 갤러리 D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런 풍경도 있을까. 평범한 듯한 사진이지만 서정성이 가득하고 편안하다. 담장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고 어딘가에 걸어두고 감상해도 싫증이 나지 않을 정도다.

원로 중견 사진작가 정영옥(72)씨가 16일까지 갤러리 D에서 '미학, 자연과의 만남'이란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 지난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회고전을 겸한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한 그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43점이 선보인다. '하란산의 봄', '메밀꽃 필 무렵', '바래봉의 봄' 등의

작품은 섬세하면서 서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다.

또 '두 노인의 하오', '유년시절' 등은 일상적 풍경인데도 향토색이 물씬 풍긴다. 디지털의 다양한 기법을 배제하고 아날로그적 방법을 고수하면서 일상적 풍경을 독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듯한 작가의 노력도 엿보인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장을 지냈고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문의 062-222-8011.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밀밭 속 두 여인'

5·18 그후 30년...엄마의 마중

극단 토박이 '마중' 19~20일 민들레 소극장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1980년 5월 이후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다.

극단 토박이가 5월 연극 '마중'을 무대에 올린다. 19~20일 오후 4시 광주 예술의 거리 민들레 소극장.

'마중'은 5·18 민중항쟁으로 행방 불명된 아들을 30년이 넘게 기다리는 어머니와 손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지난 2008년 5월 '상중(喪中)'이라는 제목으로 초연 후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삼례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아들 영식을 키웠다. 영식은 열심히 일을 해 원하던 집을 장만하지만 그 해 오월 장사를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 30년이 지나도록 삼례는 아들을 기다리지만 기대는 그런 할머니가 답답하기만 하다.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집을 떠나야할 상황이 되자 삼



례는 철거될 집에 매일같이 가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임해정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극단 대표 배우 송은정·박정운씨가 출연한다.

지난 1983년 창단한 토박이는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실' 등 5월 연극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는 단체다. 무료 공연. 문의 062-222-62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